

기업윤리 브리프스

2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전문가 칼럼

대중소기업 아름다운 동행이 한국경제의 미래 중소기업 창업 K-리그전부터 방송홍보 시작해야!

김익성(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민주화가 대권경쟁의 핫 이슈로 등장한 이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기업전략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형식적인 동반성장정책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재산성의 격차를 불러 왔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46.9%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정부주도형 동반성장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기업 생존과 성장에 기본적인 전략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도 상생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대기업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협력 중소기업들의 부품 하나하나가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로 신속히 시장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을 때 대기업의 지속성장이 보장받을 수 있고 동시에 협력 중소기업들도 살 수 있다.

최근 차별화된 원천기술로 특정시장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독일 중소기업 즉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시장점유율 1~2위의 숨겨진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유럽경제가 재정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지금 세계 수출 3위의 경제대국 독일의 저력은 1,300개에 이르는 히든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는 웬만한 경제 불황기에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지탱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업발전을 주도해가는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창업 및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정책부터 펴야 한다. TV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창업 K-리그전을 열어보자. 그래야 유능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동반성장도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때 가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아름다운 동반성장도 그리고 부강한 선진경제대국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만들어 져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선진대국이다.



올해의 윤리이슈는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즉,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인력양성, 부품국산화, 신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성과에 대하여 현금보상은 물론 단가보상, 장기계약, 공급량확대, 공동특허, 판매수입공유, 판로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합의와 계약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성과공유제는 1959년 일본 도요타가 협력사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원가절감 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최초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시행에 들어갔다. 성과공유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VS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는 대기업이 목표달성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나누는 방식이라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구분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개념	대기업이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을 때 주주, 임직원 등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제도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업체도 추구하자고 제안	부품·공정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배 배는 제도
도입 현황	삼성이 초과이익 20%를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50%까지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하는 ‘초과이익배분제’ 시행	2004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5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 1959년 도요타에서 처음 도입한 뒤, 다임러, 크라이슬러, 델파이 등 미국, 유럽 기업들도 도입
실행 방식	협력업체 기여도 등을 평가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한 뒤 협력업체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	원가절감형(부품, 공정 개선) 부품공동개발형(부품국산화), 처세대 제품 공동개발형 등 방식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규사업 우선권 부여, 현금 배분 등
정부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4월 중 실무위원회 구성예정 세제 지원 등 검토 중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분부가 2005년부터 우수사례 수개 등 확산 노력 성과공유제 시행 공기업은 정부사업 참여 때 우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동반성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동반성장의 근본 방향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평가 및 확인과 사례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성과공유제를 통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별로 보는 윤리.. 식품산업

식품의 안전성 보장

공업용 소금 간장, 멜라민 분유, 각종 첨가제 등 식품안전사고와 안전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및 식품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청정원 등은 식품안전성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풀무원은 바른마음 경영이라는 비전 아래 유해성분 외 영양성분 완전표시제, 식품첨가물 관리, 대한민국 LOHAS 인증 획득 등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제일제당 역시 식품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신제품 안전성 검증, 대한민국 LOHAS 인증, HACCP 컨설팅 등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청정원도 HACCP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LOHAS 인증 획득 등 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바른 먹거리 추구

국내에도 ‘웰빙’의 바람과 함께 유기농 식품과 건강식품에 관심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는 2006년 1조 3,000억원에서 2011년 3조 9,67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유기농 식품을 선보인 풀무원은 유기농 가공 사업을 강화하고, 자연 생식품에 적합한 원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여 ‘바른 먹거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바른 먹거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바른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철저한 환경관리

사회책임과 함께 환경경영이 강조되면서, 식품 기업 역시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다.

코카콜라는 환경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의 물 사용지수, 에너지 사용지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에너지 사용지수와 물 사용 지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공익성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을 위한 식품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아쿠르트는 해마다 김장 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인 ‘즐거운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기존 중소 식품업체 제품에 대한 전국유통 대행 차원을 넘어 연구개발(R&D)부터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결론

식품업체가 당면하는 윤리이슈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식품업체 역시 기후변화를 대비한 환경관리,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 폭넓은 윤리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기대해 본다.

현장을 찾아서...

유니베라 소개

유니베라(대표 이병훈, 정찬수)는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 웰니스 기업으로 1976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에 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 알로에 산업을 개척해온 ㈜남양알로에의 새로운 이름이다. 알로에 소재의 연구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천연물 소재로까지 연구 영역을 넓혀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등을 통해 웰니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기업비전 -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이병훈 대표이사가 매년 신규 입사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쓰는 표현은 “유니베라는 꿈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터”이다. 직장인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다. 때문에 유니베라는 직장을 단순히 생계수단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비전아래 모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토론과 계몽을 통해 각자의 꿈을 하나의 큰 꿈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이 성장하고 각 구성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동지,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일터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미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유니베라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변하지 않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찾고 연구하여 고객과 사회에 전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뜻한다.

유니베라 3대 사회공헌활동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 받는 어린 생명을 구하는 힐링요의기적 캠페인

첫째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량의 금액이 적립금으로 쌓여 전달되는

방법이다. 유니베라의 전 제품(일부 바디용품 제외)에는 힐링요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10개가 모이면 한 아이에게 생명의 비타민이 전달된다. 둘째는 서브퍼스트 팔찌를 구매하는 것이다. 서브퍼스트 팔찌 한 개를 구입하면 다섯 명의 아이에게 비타민이 전달된다. 팔찌는 유니베라 온라인몰 또는 UP에게 구매할 수 있다. 유니베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본부장 김교만 상무는 “힐링요의 기적은 단순한 기업 기부형 활동이 아니라 고객 한사람 한사람이 동참하는 뜻 깊은 캠페인이다”며 “작년은 60만 여명의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전달했으며 올해는 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함께 하는 유니베라 나눔 캠페인

유니베라 나눔 캠페인은 2003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과 대리점, UP(Univera Planner, 유니베라 생활건강설계사)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모금캠페인이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및 센터를 비롯한 각종 운영 사업에 사용된다.

모인 성금은 음악, 미술, 언어, 댄스, 웃음 등을 활용한 재활치료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의 작은 여유와 잔잔한 문화를 드려요, 웰니스 음악회

웰니스 음악회는 유니베라가 2005년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만든 공연이다. 유니베라 사옥 야외 무대에서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2005년 9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스윙소로우, BMK 등 유명 가수들을 비롯해 난타, 전통 국악, 재즈, 클래식 등 해마다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FCPA의 제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에서 “FCPA”)은 1970년대 초 Watergate Scandal 수사과정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에 성공한 사실들(록히드 뇌물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된 법률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기소건수가 과거 20년간 기소 건수의 3배가 넘고, 특히 기업들에게 부과 되는 징벌금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규모일 뿐 아니라, 지나친 관할의 확장 적용으로 미국 기업보다도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적용이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와 우려가 되고 있다.

FCPA의 발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미 연방의회는 1988년 동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FCPA의 적용대상이 될 주체가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누구든지”로 확장되었고 이는 동법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FCPA의 적용이 점차 강력해지고 FCPA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인하여 국적을 불문한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미치고 있다.

FCPA의 적용대상

제정 당시 FCPA가 규정하는 주체는 미국 내 상장 및 등록된 기업, 그리고

기타 미국의 기업 및 미국 시민, 즉, 미국 기업 및 시민이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외국인,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서 체류 중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역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FCPA가 금지하는 행위

FCPA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한다. 뇌물공여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뇌물제공의사의 전달 내지는 제안, 뇌물제공의 약속, 그 외 뇌물제공에 대한 승인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선물의 제공과 선물제공의사의 전달 내지는 제안, 선물제공의 약속 및 그 외 가치 있는 물품제공행위에 대한 승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FCPA 위반의 효과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회사는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혜택과 자격 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가중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FCPA를 위반한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에 대하여는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며, 임직원은 물론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 등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이와 같은 벌금형과 자유형의 병과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산정되는 벌금의 액수이다.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 수, 해당 기업의 고위직이 연루되었는가 여부, 전과유무, 해당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 유무 등에 따라 벌금액수는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다. 또한 뇌물 공여자가 얻으려 한 이익 역시 실제 벌금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 가능한 변수이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FCPA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에 비해 훨씬 큰 액수가 산정된다.

2012년 기업윤리 최근 국내외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한국 기업 지속가능경영 점수는 '87점'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코벡스 SM: KoBEX SMTM)'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2012년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97점(10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3.44점(84.53→87.97) 상승하였고,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응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협력업체 부문이 전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지역사회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 윤리경영 고삐.. "축의금·화환 안받습니다"

대기업들이 윤리경영에 공을 들이고 있음.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열사와 협력사가 모두 경조금품이나 축하 화환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LG의 경우에도, 임직원들이 협력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 자로부터 경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하는 경조 관련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음. 현대차도 윤리경영을 글로벌 경쟁시대 핵심 경영요소로 여기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전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 있어서 법과 규제는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킨텍스, 반부패 경쟁력 평가 '매우 우수' 1등급 획득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부문에서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아 타 기관 및 기업들의 모범이 되었음. 권익위에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10여 년째 지속하고 있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각급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해외 윤리경영 동향

GRI 세계회의 개최

2013 GRI 세계회의는 정보, 통합 그리고 혁신의 주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서 개최 될 예정임.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사업, 정부, 금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로부터 최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도전과제들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국제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10년 회의에는 77개국으로부터 1200 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1500 여명의 대표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됨.

G4 개발 프로세스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제 4세대인 G4는, 공식발표를 앞두고 G4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GRI 기술고문위원회(TAC)의 위원들과 현재 논의 중에 있음.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개검토기간(Public comment period)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공개검토는 개정안의 초점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 공개검토는 기관들과 개인들이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공개검토기간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들은 현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위한 초안과 함께 기술자문위원회(TAC)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음. G4의 완성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회(SC)의 회의는 2월에 개최될 예정임.

"이윤 대신 윤리" 미 MBA의 반란

워싱턴에 있는 로마 가톨릭계 종합 사립대인 미국가톨릭대학이 기존 경영학 석사(MBA) 과정의 교육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경제·경영대학원을 올해 신설할 계획임. 이 경영대학원은 '기업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공공성도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윤리경영'을 핵심 교육 목표로 함. 미국가톨릭대학 경영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경영학의 방법론과 더불어 윤리교육을 '선택'이 아닌 '전공필수'로 한다는 점이며, 이윤과 윤리가 동행하는 경영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임.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영계에서도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은 올해 9000명 규모의 미주지역 신규채용 때 윤리교육을 갖춘 경영대학원의 졸업자들을 주목하고 있음.

공공부문 윤리경영

주요 툴 운영 know-how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노력을 지원하고자 현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렴성 진단 툴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 등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대상 :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

● 교육비 : 정부 지원(무료) ※ 교통비·식비는 자체 부담

● 운영기간 : 3월부터 예정 ※ 참여기업 수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참여방법 : 선착순 마감

(문의 : 민간협력담당관실 02-360-2772, 277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주요 프로그램

TOOL	주요 내용	적용 분야
기관 청렴도 측정모델 및 분석기법	- 기관 업무별 청렴도 진단 방법과 분석 및 개선 ※ UN공공행정성 대상수상(2012.6), 태국·인니 등 전수	- 업무분야별 부패유발 요인 도출과 개선
직원 청렴성 진단모델 및 분석기법	- 직원에 대한 청렴성 진단과 분석 및 개선	- 직원의 교육·업무배치 기초자료
행동강령 내용 및 사례분석	-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실천기준	- 직무관련성에 따른 구체적 행동기준 제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과 관련된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	- 부패 유발요인 발굴과 조치차단
윤리부조 운영	-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제도	- 소비자 고충 처리 프로세스
기타	- 청렴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청렴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우수사례	



윤리경영 100문 100답



경조사와 관련한 윤리 문제 ▲

올해들어 윤리규범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계열사와 협력사가 모두 경조금품이나 축하 화환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번호 브리프스에서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민들을 모아보았다.

1 | 거래처의 경조금

- Q** 김원칙 부장은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게 되었다. 돌려주면 상대방에서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 A** 사회관습 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 주어야 한다

2 | 업무관련 고객의 비금전 선물 수령

- Q** 나윤리 사원은 평소 업무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정부기관 과장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깝게 지내던 분이라 조의금을 내려 하는데 공무원은 경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고민이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기도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 A** 공무원은 친족 등 특별관계 이외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5만원 이내에서 하면 된다.

주 : 공직자 행동강령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2월 : 사회책임경영보고서 – COP워크숍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2013년도 COP워크숍을 개최함. UNGC/CSR 보고서 최근 동향, COP 분야별 보고서 작성, 우수 사례 발표 및 CSR 경영정책 실행을 맡은 실무자들의 토론시간을 마련할 계획임.

주 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일 시 :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트레이닝룸

국 외

마카오 국제환경공동포럼 및 전시회 개최

마카오 국제환경공동포럼 및 전시회(Macau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um and Exhibition (MIECF 2013))가 '지속가능한 도시-녹색미래를 향해'(Sustainable Cities-The Way Towards a Green Future)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그린포럼, 그린전시, 그린비즈니스매칭, 그린공중의 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환경보호에 주목하라', '자연과 친근하라', '즐거움 라이프 공유하라'는 이념을 홍보할 예정임

주 최 : 마카오 무역투자진흥국(IPIM) 및 환경보호 사무국(DSPA)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장 소 : 마카오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호텔

윤리경영퀴즈

이 법은 1970년대 초 Watergate Scandal 수사과정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에 성공한 사실들(록히드 뇌물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된 법률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기소건수가 과거 20년간 기소 건수의 3배가 넘고, 특히 기업들에게 부과 되는 징벌금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규모일 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할의 확장 적용으로 미국 기업보다도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적용이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와 우려가 되고 있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 2)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3) 뇌물수수법(Bribery Act)
- 4)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천창훈 님, 윤희중 님, 박종섭 님, 박병철 님입니다.

※ 상품은 보내주신 주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윤리경영



룰을 어기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룰을 어기는 선수, 소극적인 경기는 관중이 외면합니다



적극적인 페어플레이로 얻은 승리에 관중은 박수를 보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경영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소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따르는 성과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자료제공 : KYOBO

새로운 책 소개



1.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펴낸곳 : 국민권익위원회
- 출판일 : 2012년 11월
- 정가/페이지 : 11,000원/442쪽
-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2.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 저 자 : 강욱모
- 출 판 : 오름
- 출판일 : 2012년 12월 15일
- 정 가 : 14,000원



3.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 저 자 : 이지순
- 출 판 : 박영사
- 출판일 : 2012년 12월 25일
- 정 가 : 65,000원